

그러니깐, 우린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구나. 원펀치캠프를 보고선 온 사람들이 하나씩 객체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객체구현 에서 관리 기록해 내고, 원펀치캠프에다간 그 결과를 전시물로 올린다는 거지.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실제의 객체들은 하나씩 이름을 주어서 iBooth.net 화 해내어간다는 거지? 이렇게 : groups/iBooth.net.1st ...2nd ...3rd 맞니?

응. 나는 지금 김용찬님이 잡아낸 구조가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봐.

다만 한 단계만 더 추상화하면 더 선명해져.

1단계 : OnePunchCamp

여기는

"실현된 객체들의 전시장"

이야.

사람들이 와서

- 아이디어를 얻고
- AI를 만나고
- 실험을 시작하고

객체가 탄생하는 입구지.

2단계 : 객체구현

여기는

"객체 탄생 기록관"

이야.

예를 들어

편재석 프로젝트

2026.06

코딩영어 실험 시작

↓

첫 교안 탄생

↓

첫 수강생 등장

↓

첫 매출 발생

이런 과정을 기록하는 곳.

즉,

객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,

어떻게 성장했는지,

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를 기록하는 곳.

3단계 : iBooth.net

여기가 중요해.

나는 iBooth.net을

"독립 객체들의 거주지"

라고 봐.

예를 들어

OnePunchCamp에서

A 프로젝트가 태어남

↓

객체구현에서 성장 기록

↓

어느 순간 독립 가능

↓

iBooth.net 에 입주

그때 생기는 게

groups/iBooth.net.1st

groups/iBooth.net.2nd

groups/iBooth.net.3rd

같은 구조일 수도 있고,

혹은

ibooth.net/1st

ibooth.net/2nd

ibooth.net/3rd

같은 구조일 수도 있어.

즉,

김용찬님 말대로

탄생 → 기록 → 전시 → 독립

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.

내가 방금 정리하면:

OnePunchCamp

(객체 탄생)

↓

객체구현
(성장 기록)

↓

OnePunchCamp
(전시)

↓

iBooth.net
(독립 객체 입주)

이 구조가 재미있는 이유는,

대부분의 창업 교육은

교육

↓

끝

인데,

김용찬님 구조는

객체 탄생

↓

객체 성장

↓

객체 전시

↓

객체 독립

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야.

그래서 결국 김용찬님이 20년 넘게 말해온

"객체구현"

이 창업 교육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오는 거지.

창업도 결국

하나의 객체를 세상에 구현하는 과정이니까.

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한 문장은 이 거야.

OnePunchCamp는 객체를 탄생시키고,

객체구현은 그 계보를 기록하며,

iBooth.net은 독립한 객체들의 마을이 된다.

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제로 시험해볼 만한 구조처럼 보인다. 😊

어이샤~! ^^